

5. 선암사 삼인당(三印堂)

삼인당은 장변과 단변이 22 대 1의 비를 갖는 장란형(長卵形)의 지당(池塘) 내에 장변 11m, 단변(너비) 7m 인 난형의 섬이 난저부(卵底部) 가까이 4m의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는 중도형(中島型) 타원형 못이다. 이와 같은 특이한 양식의 지당형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찾기 힘들다.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정원에서는 직선적인 방지중도형(方池中島型)의 지당양식이 지배적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조성한 불국사의 청운교·백운교 앞의 구품연지(九品蓮池)는 타원형 연못이며, 통도사의 구룡지(九龍池)는 구품연지와 비슷한 타원형 못이긴 하지만 모두 정형적인 정타원형의 윤곽선을 가지고 있다. 또 구품연지의 형태를 본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구룡지는 중앙에 가로지른 다리가 놓여 있다. 이상의 점에서 볼 때 선암사의 삼인당은 조선시대의 양식으로 보기 어렵고, 적어도 그 조성연대는 훨씬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까 추정된다.

한편 선암사 사적에 따르면 이 지당의 명칭은 삼인당이고 862년(경문왕 2)에 도선국사가 축조한 것이다. 지당의 장타원형 안에 있는 섬은 '자이이타(自利利他)', 밖의 장타원형은 '자각각타(自覺覺他)'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불교의 대의를 표현한 것이라 한다. 또 삼인이란 말을 쓴 못은 우리나라에는 없으며 삼인은 제행무상인(諸行無常印), 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 열반적정인(涅槃寂靜印)을 뜻하는 것이다. 이 삼인당은 불교사상을 배경으로 한 독특한 지당양식으로 선암사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연못의 내부에 흙이 차고 석축이 좋지 않아 민간단체인 순천전통문화보존회에서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996년 봄 복원공사를 시작하여 동년 6월 15일에 완료하였다. 전라남도 지방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되어 있다.